오려서 모아보세요

둘리 호기심 나라 〈129〉

?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왜 얼굴이 부을까요?

! 나트륨 성분이 얼굴을 붓게 한대요.

라면처럼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 성분이 몸에 많이 들어와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속 세포가 물을 끌어당겨서 얼굴이 붓게 된대요.

©DOOLYNARA

포켓몬 四字성어 〈25〉

포켓몬과 함께 사자성어를 배워요!

自給自足

스스로 자 줄 급 스스로 자 발 족

자급자족이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함.

꿀을 좋아하는 **나메일**은 **자급자족(自給自足)**하지 않고 세꿀버리가 모아 둔 꿀을 가로챌 생각만 해요.

나메일
타입 벌레, 비행
분류 나방포켓몬
키 0.9m **몸무게** 23.3kg

오늘의 한자를 함께 써 봐요!

自給自足

©1997 Nintendo/Pokémon.

디보의 한국사 여행 Later Three Kingdoms 〈128〉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1)
In 900, Gyeon Hwon established Hubaekje in Wansanju(now known as Jeonju). With it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ubaekje was the most powerful kingdom among three kingdoms. But Hubaekje couldn't unify the three kingdoms because of its hostile attitude toward Silla, failure to embrace powerful clans and power struggles for throne between Gyeon Hwon and Singeom.

후삼국시대 (1)
900년, 견훤은 완산주(지금의 전주)에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후백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춰 삼국 중에서 가장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 호족 포섭 실패 그리고 견훤과 신검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 후삼국을 통일하지는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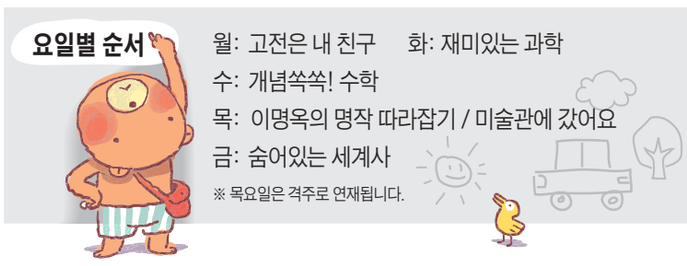
Quiz Which kingdom was the most powerful kingdom among the Later Three Kingdoms?

정답 : Hubaekje

제공 박정 어학원 www.pjenglish.com | © OCON Inc. All Rights Reserved.

요일별 순서

월: 고전은 내 친구 화: 재미있는 과학
수: 개념쏙쏙! 수학
목: 이명옥의 명작 따라잡기 / 미술관에 갔어요
금: 숨어있는 세계사
※ 목요일은 격주로 연재됩니다.



숨어있는 세계사

글 모르지만 글자 만든 왕 카롤루스 대제

유럽 크로아티아의 도시 두브로브니크 모습이에요. 붉은색 지붕과 쪽빛 바닷물,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네요. 크로아티아는 오는 7월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이 된답니다. Corbis/토픽이미지

768년부터 46년간 프랑크왕국 통치하며
서유럽 전역으로 영토 넓힌 카롤루스 대제
종이 아끼려 '카롤링거 소문자' 만들고
서유럽에 크리스트교도 전파했어요
로마·게르만 문화 섞인 새 문화 만들어졌죠

Corbis/토픽이미지
◀카롤루스 대제의 동상이에요. 카롤루스 대제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내며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넓혔어요.

'유럽의 숨겨진 보석'.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크로아티아의 별명이에요. 크로아티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원으로 있다가 1991년에 독립했어요. 민족 간 갈등으로 내전(★)을 겪었지만, 지금은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붉은 지붕이 연이어 넘실대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발전하고 있지요.

크로아티아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의 28번째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이에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늘면서 유럽은 점점 더 거대한 정치·경제 공동체로 발돋움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유럽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카롤루스 대제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카롤루스 대제(大帝)'라는 명칭은 라틴어(Carolus Magnus)랍니다. 프랑스어로는 '샤를 대제'라는 뜻의 '샤를마뉴(Charlemagne)', 독일어로는 '카를 대제(Karl Magnus)'라고 부르죠. 카롤루스 대제는 768년부터 814년까지 46년간 프랑크 왕국을 통치했어요.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랍니다.

할아버지 카를 마르텔은 궁재(★)로 왕국의 최고 권력자가 됐고, 아버지 피핀은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왕위를 차지했어요. 아버지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카롤루스 대제는 권력과 영토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어요.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내며 서유럽 전역을 제패했죠. 카롤루스 대제가 에스파냐 원정에서 돌아오던 길에 바스크족의 습격을 받아 후위대(★)가 전멸한 일은 이후 문학 작품으로도 등장해요. 바로 중세 최고의 기사도문학 '롤랑의 노래'랍니다.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에는 이 작품의 내용이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프랑크 왕국은 영토가 2배나 넓어졌어요. 오늘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북부·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에 해당하는 지역이 모두 프랑크 왕국 영토였으니 정말 대단하죠. 정복한 땅에는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어요. 랑고바르드족(롬바르드족)의 침입에 시달리는 교황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 원정도 단행(★)했답니다. 800년 12월 25일 열린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제국 황제의 왕관을 내렸어요.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는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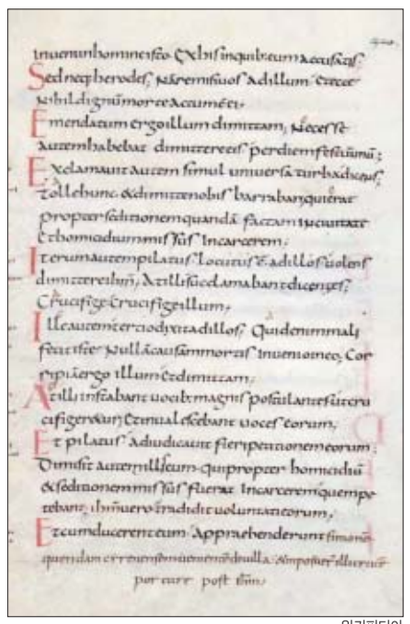
카롤루스 대제는 종교와 학문에 대한 관심도 깊어 다방면에 큰 활약을 했어요. 카롤루스 대제는 당시 수도였던 아헨의 궁정에 학교를 만들고 알퀴누스와 같은 유명한 학자를 모셔다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당시 유럽의 언어와 문자는 서로 달라 어려운 수준의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또 글자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글자를 몰랐어요. 카롤루스 대제도 죽을 때까지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했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이슬람교 세력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이집트산(産) 파피루스(★)의 수입이 어려워졌어요. 값비싼 양피지(★)를 아껴 쓰려면 큰 로마 문자가 아니라 작은 글자를 사용해야 했지요. 알퀴누스와 수도사들이 만든 '카롤링거 소문자'는 알파벳 소문자의 기원이 됐어요. 새로 만든 글자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책들을 베껴 쓰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 시기에 이뤄진 문화의 부흥을 그의 이름을 따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한답니다.

로마 제국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카롤루스 대제의 시대에 크리스트교가 퍼져 나갔고, 로마 문화에 게르만족의 문화가 더해진 새로운 서유럽의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카롤루스 대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럽'이라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가 죽은 뒤 프랑크 왕국은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 나뉘었어요. 유럽 여러 나라는 흩어지고 통합되고 전쟁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지요.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로 인해 '유럽 문화'라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유럽의 평화와 통합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샤를마뉴 상(賞)'을 수여하고 있어요.

공미라·경기 구리 인창중 교사(세계사 저술가)
감수 조승래·청주대 교수(역사문화학과)

★**내전(內戰)**: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휴양지**: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살피기에 알맞은 곳.
★**프랑크족**: 서게르만의 한 부족. 민족 대이동 때 갈리아 지방으로 진출하고 세력을 확대해 5세기 말 프랑크 왕국을 건설했다.
★**궁재(宮宰)**: 궁정과 왕실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신하.
★**후위대(後衛隊)**: 주력 부대의 뒤쪽을 지키는 부대.
★**스테인드글라스**: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해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
★**단행(斷行)**: 결단하여 실행함.
★**계승자(繼承者)**: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가는 사람.
★**파피루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풀줄기의 섬유로 만든 종이.
★**양피지(羊皮紙)**: 양가죽을 얇게 펴 처리해 글을 쓰는 데 사용하던 것.



위키피디아
카롤링거 소문자로 쓴 성경책의 한 페이지예요. 카롤링거 소문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파벳 소문자로 발전했지요.

Getty Images/멀티비츠
화가 장 빅토르 슈네츠가 그린 카롤루스 대제(왼쪽)와 알퀴누스의 모습이에요. 카롤루스 대제는 알퀴누스를 비롯한 학자들을 초대해 아헨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이번 주 '신문은 선생님' 복습 퀴즈와 가로세로 퍼즐의 정답을 아는 분은 모닝플러스(morningplus.chosun.com) 사이트의 이벤트 코너에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어린이에게는 5월 4·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포켓몬타운 2013' 입장권**(20명·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최: (주)포켓몬코리아

이주의 복습 문제

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 유럽의 숨겨진 보석
㉡ 제2차 세계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원으로 있다가 1991년 독립했어요.
㉢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의 28번째 정식 회원국이 될 전망이에요.

① 크로아티아 ② 라트비아 ③ 알바니아
④ 슬로베니아 ⑤ 몬테네그로

출제=하현진·서울 중현초등학교 교사

2 다음 단어들이 공통으로 일컫는 곡식은 무엇일까요?

· 말락킷 · 가오 · 나시 · 카우 · 고메

① 보리 ② 쌀 ③ 밀 ④ 옥수수 ⑤ 메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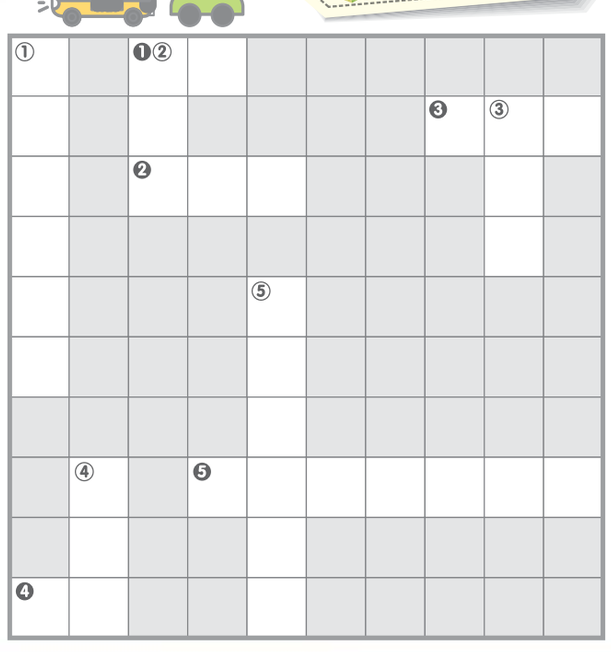
3 다음 보기에서 ( )에 해당하는 알맞은 한자를 찾으세요.

① 役割 ② 近接 ③ 行爲 ④ 暴走 ⑤ 自給

©1997 Nintendo/Pokémon.

1) 곤율랭이 피부를 목까지 올리는 모습은 실은 몸을 보호하는 (행위)랍니다.
2) 벌차이는 진화의 시기가 (근접)해지면 스스로 엉덩이에 있는 해골을 벗는답니다.
3) 골루그의 가슴에는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떼어내면 에너지가 (폭주)해 버린다고 해요.

가로세로 퍼즐



가로 퀴즈

❶ 재미있는과학: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 )이라고 해요.
❷ 미술관에 갔어요: 건드리면 바로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가진 그리스신화 속 왕의 이름은?
❸ 상식쑥쑥 역사: 대장장이가 쇠를 달궈 연장을 만드는 곳.
❹ 둘리 호기심나라: 풍선이 하늘로 뜨는 이유는 그 속에 ( )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❺ 디보 한국사: Jang Bogo set Cheonghaejin in Wando in 828. He swept ( ) and made this area the center to rule the sea.

세로 퀴즈

① 재미있는과학: 다른 금속과 달리 형태가 바뀌더라도 열을 가하면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는 합금.
② 교과서여행: ( )란 유적에서 출토되는 곡물의 하나로, 불에 타거나 땅속에서 자연 탄화돼 남아 있는 쌀.
③ 뉴스 속 역사: 피라미드 모양으로 돌을 쌓아 만든 장수왕릉.
④ 둘리 호기심나라: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이유는 라면 속의 ( )성분 때문이에요.
⑤ 디보 한국사: Farmer's lives were destroyed by political corruption, heavy taxes and severe ( ).